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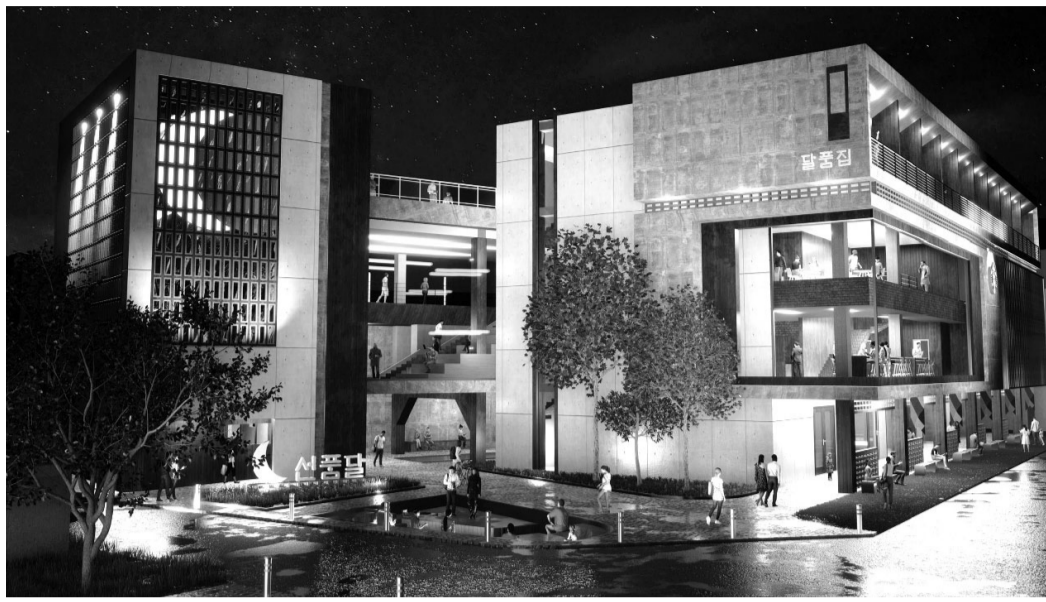
# 조선대, '도내기시장' 핫플레이스로 만든다

### 신축부지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윤승현 작품 '선품달' 대상 옛 추억-현대 공존 지역민과 상생

광주시 동구 서석동 일대 옛 '도내기시장'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사장 김이수)는 광주 동구 서석동 청년문화시장(도내기시장) 인근을 활성화하고, 대학 캠퍼스와 학교 밖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MZ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축부지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했다.



대상 윤승현



대상작 선품달 조감도

시상식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1팀(300만원), 우수상 1팀(200만원), 장려상 2팀(100만원)에게 총 1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신축부지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은 윤승현씨의 '선품달' 작품이, 최우수상은 그늘마루팀(김윤식·김경동·김미진)의 작품이 선정됐다. '선품달'은 '조선을 품은 달'의 함축어로, '아침 햇빛을 선명하게 받는다'는 의미의 조선(朝鮮)과 같이 젊은 청년들의 앞날이 밝고 활기찬 거리,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달과 같은 거리가 되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관계자는 도내기시장 일대를 동구청, 지역민이 함께 손잡고, 동명동-푸른길-도내기시장-조선대학교 캠퍼스가 연결되는 MZ세대의 만남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이수 학교법인조선대 이사장은 "첨제된 조선대학교 후문과 도내기시장 일대를 옛 추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핫 플레이스로 개발해 지역민과 함께 상상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각하는 힘' 학생·교사 독서역량 높인다

### 전남교육청, 독서인문교육 '책으로 여는 아침' 운영

'책 읽는 전남교육'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전남교육청이 학생과 교사의 독서역량을 높이기 위해 '책으로 여는 아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책 읽는 학교, 책으로 대화하는 가정, 권역별 학교도서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책으로 여는 아침'을 운영한다. 일찍 출근·등교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독서인문교육주간 운영해 책 읽는 방법과 독후감 쓰기 등을 시행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확

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학교 독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독서교육 체제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미래교육과 독서인문교육팀을 신설했으며 권역별 거점 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만들어 학교 현장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독서 지원 확대를 위해 독서인문교육종합포털 가칭 '아이랑 책이랑'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 교육을 실현해 학생들의 학습 문해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목포대 'SW·AI 디지털새싹캠프' 성공적 마무리



목포대 SW·AI 디지털새싹캠프 성과보고회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디지털새싹사업단은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학중 디지털 새싹 캠프' 목포대와 함께하는 미래교실 SW·AI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디지털교육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처음 시행한 방학 중 교육캠프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주)레드포인트와 협력한 이번 목포대와 함께하는 미래교실 SW·AI 캠프는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광주·전남 총 62개 기관 참여 2380명의 학생을 교육했다. 목포대 디지털새싹사업단 사업총괄 교수인 최종영 교수는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결과 SW·AI 캠프가 재미있고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SW·AI 학습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미래사회 주도 창의·융합형 AI인재 양성

### 대성여고서 'AI 팩토리' 개소식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미래교육 맞춤형 교실 'AI 팩토리' 개소식을 열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I팩토리 사업은 3대 역점과제 사업 중 하나인 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미래교육 맞춤형 교실 AI 팩토리' 개소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에 대비한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25교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 45교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중·고등학교에 1실 이상의 미래교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성여고 이상준 교장은 "AI팩토리를 활용해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본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우리 대성여자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AI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AI 기반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광주 학생들이 AI 중심의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I팩토리'는 다양한 형태의 모듈 공간, 활동 중심의 놀이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교사용 칠판과 모듈별 모니터는 교사용 기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이 적용돼 학생·교사 사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특히 AI팩토리 구축으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학생 활동 중심의 협업과 탐구 활동 중심의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실현돼 학습의 효과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신대, 지역유관기관과 업무협약...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4일 정보전산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유)인지이스, (재)녹색에너지연구원(나주사업자리지원센터),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일엔광주, 세한대학교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

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매년 청년취업 위탁기관과 협약을 맺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정부 지원 정책을 이어주는 취업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동신대 양일승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년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